



## 이상준展

6. 3~7. 14

갤러리상상마당

글 | 류한승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시장에서 만난 이상준의 작품은 과기스럽고 섬뜩하고 강렬하다. 과연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이상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로 오랜 만에 열린 개인전이다. 2004년 두아트 갤러리에서 그는 폴리우레탄으로 로봇 혹은 외계인처럼 생긴 귀여운 조각을 선보였다. 그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조형감각이 돋보인 조각을 그는 'Tommy'라 불렀다. 당시 이상준은 소조, 형틀, 주형 등 조각의 캐스팅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용하여 형상이 있는 조각품을 제작했지만, 그 형상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의미하거나 재현하지 않았다. 즉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오브제 그 자체인 것이다. 더불어 '조각'이라는 맥락과 통념 안에서 규정되고 기호화되는 어떤 '오브제'에서 벗어나, 순수한 오브제가 되길 바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익숙하지만 기능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2009년 이상준은 스티로폼, 알루미늄 테이프, 철사, 플라스틱, 아크릭 물감, 시바틀, 폴리에폭시 등 여러 재료를 붙이고 잘라내어 피에타, 목이 잘려나간 동물, 벽에 매달린 사람 등을 만들었다. 이번 조각들은 형태적으로 과거 작업과 큰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전 작업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각에 대한 작가의 탐구가 보다 치밀하고 대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Confession〉은 분명 피에타를 떠올리게 하지만, 왠지 이 작업에서 슬픔, 구원, 성스러움을 느끼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각종 산업 재료가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조의 방법으로 형상을 구성했기에 사용된 질료와 제작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고 '진술' 된다.

〈Independence〉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담을 상상하며 만들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인간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의 뼈, 근육, 장기 등을 표현했지만, 이 신체의 기관들은 모형일 뿐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조각가가 인간과 똑같이 조각을 제작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일 순 없



다. 물론 이 작품 역시 성스러움은 없다. 단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조각일 뿐이다. 〈Pinch〉는 그레이트 데인(Great Dane)을 소재로 한 작업이다. 그런데 개의 머리가 잘려져 있는 끔찍한 모습이다. 말 그대로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 두뇌의 활동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과거 'Tommy' 시절부터 과감한 색채 사용은 이상준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색의 강조는 회화를 연상시키는 〈Fiction〉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아크릭 물감과 폴리에폭시를 나무판에 붓거나 몽개서 납작한 조각을 만들었다. 붓으로 어떤 형상을 묘사하거나 질서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Fiction〉이 회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화가 아니다. 회화를 표방한 '허구'이다. 그러나 그 허구도 실제이다.

이상준은 이 조각들을 영성한 조각대에 올려놓거나 페인트 칠하지 않은 합판 벽면에 설치하고, 어두운 조명과 함께 필립 글래스(Philip Glass)의 '코야니스카시(Koyaanisqatsi)' 음악을 전시장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코야니스카시'는 인디언 말로 '균형 잃은 삶'이라고 한다. 이상준은 전시 제목을 'Paradise Lost(실낙원)'라고 붙였는데, 영국의 시인 존 밀튼(John Milton)이 17세기에 지은 서사시에서 이름을 차용한 것이다. 실낙원은 인간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다.

오랜 기간 동안 조각이라는 분야가 형성되고 전개되면서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와 담론이 달라 붙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이라 부정할 순 없지만, 그중에선 관습화되거나 미화된 요소도 적지 않다. 그 신비화된 외피를 벗겨내고 새롭고 생산적인 담론을 다시 펼치기 위해 이상준은 '기관 없는 신체'와 같은 상태의 조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Paradise Regained(복낙원)'의 시작일 지도 모른다.

〈Beast 1〉 혼합재료 50x80x130cm 2009